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 협력 '굳건'

전북대-전북자치도-전주시, 전략회의 개최

김관영 도지사, 전북대 방문... 유치준비 점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전주시(시장 우범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김관영 도지사, 김중훈 경제부지사,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 TF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회의를 가졌다.

김관영 도사는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 애써주고 계시는 양오봉 총장님과 반도체 관련 학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법 지역적 염원인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날 1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지자체와 자동차융합기술원, KFE(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반도체 장비진흥화연구단, KIST 전북분원 등 유관 연구기관, 그리고 동우화인켐, 한솔케미칼 등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 유체에 큰 뜻을 모았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전북특별

자치도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지역의 혁신기관들과 함께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 유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연구소와 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들이 뜻과 지혜를 모으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은 2028년까지 건립비 164억원과 기자재비 280억원 등 총 444억원을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 TF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회의를 가진 뒤 합지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사업 '매우 우수'

전북대, 전북권 16개 참여대학 공동활용 콘텐츠 개발 16개 대학 학점 교류, 80개 과목에 1만여명 학생 참여

전북대학교는 전북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4차 연도 사업 운영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1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주비전대와 함께 2020년 이 사업에 선정, 4년 동안 전북권 16개 참여대학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원격교육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 이를 통해 16개 대학이 학점을 교류하고, 80개 과목에 1만여 명의 전북지역 학생이 참여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매년 워크숍을 열어 우수 사례를 지역대학에 확산시키는 등 전북지역 대학 간 연계와 협력도 강화했다.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4차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 전국 10개 권역 가운데 전북대를 비롯한 3개 권역만이 '매우우수'로 선정됐다.

4차년도 사업을 통해 전북대는 인공지능 관련 1종을 포함해 4종의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권역 내 학점교류 학생수가 2022년 3,198명에서 2023년 5,907명으로 84.7% 대폭 증가했다. 또한 8개교 스튜디오



전북대학교 본부 전경

개선, 학습관리시스템 개선 등 원격교육 기반을 고도화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전북지역 대학들과 상생발전을 세부계획으로 내세운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연계해 교육콘텐츠 공유 등 전북지역 대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원격교육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현경 센터장은 "사업기간동안 전북권 16개 대학이 LMS, 스튜디오, 콘텐츠 등을 공동 활용하고,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학점교류 등의 성과를 올렸다"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북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사업을 통해 전북지역 대학들과 수요에 기반한 교육콘텐츠 공유 등 원격교육 길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 미래, 소통·협력으로"

서거석 교육감, 직원초회서

"전북교육의 미래를 소통과 협력으로 만들어갑시다."

서거석 교육감은 1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7월 직원초회에서 "직원들 모두 부서나 팀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서 간에 활발하게 소통해야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서 "지원청과도 자주 소통하고, 특히 학교 현장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년간의 노력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 핵심 정책이 차근차근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소신 있게 걸어가는 길이 전북교육의 역사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직원초회는 서거석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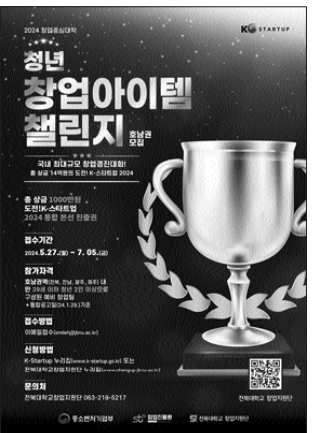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7월 직원초회에서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교육 대전환 2년! 한국교육 중심으로'라는 문구가 쓰여진 팻말을 들고 있다.

감이 취임 후 2년 동안 추진한 교육정책들을 되돌아 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 교육감은 2일 분청 강당에서 취

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지난 2년의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2년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

청년창업아이템 챌린지

'도전! K-스타트업 2024'

창여 대표팀 선발 위해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손정민)은 청년창업아이템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14억원의 상금이 걸린 '도전! K-스타트업 2024'에 참여할 대표팀을 선발하기 위함이다.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중소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체 운영하는 범부처 협업 창업경진대회다. 올해 예선리그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포츠리그가 신설, 총 11개 예선리그가 펼쳐진다.

이 대회의 지역 예선적인 창업중심대학 청년창업아이템 챌린지는 호남권 창업중심대학인 전북대가 호남권역 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팀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참가팀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호남권역(전북, 전남, 광주, 제주) 내 만 39세 미만의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이다.

모두 3개 팀을 선정해 최우수 1팀에 500만원, 우수 1팀에 300만원, 장려 1팀에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 중 최우수 1팀에 대해서는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지원해 통합 분선인 '도전! K-스타트업 2024'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또는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누리집(web.jbnu.ac.kr/sites/changup)을 통해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농촌유학 2학기 첫 모집에 48명 신규 신청

완주 12·익산 10·임실 9명 순으로 많아

4일까지 사전방문 기간 운영 후 최종 배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학년도 2학기 전북 농촌유학 학생 모집 결과, 48명이 신규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완주 지역에 가장 많은 12명의 참가 신청이 몰렸고, 익산 10명, 임실 9명, 순창 8명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전북 농촌유학 희망 학생들은 오는 4일까지 사전방문 기간을 통해 유학 학교와 거주시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경합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면담 결과에 따라 최종 유학생이

이벤트 2학기에는 농촌유학 운영학교가 9개교 늘어 총 13개 시·군, 33개교에서 유학생을 모집했다.

이에 따르면 완주 지역에 가장 많은 12명의 참가 신청이 몰렸고, 익산 10명, 임실 9명, 순창 8명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전북 농촌유학 희망 학생들은 오는 4일까지 사전방문 기간을 통해 유학 학교와 거주시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경합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면담 결과에 따라 최종 유학생이

신청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향후 농촌유학생 한미방 축제, 찾아가는 수도권 설명회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농촌유학생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농촌유학은 2022년 27명으로 시작해 2023년 84명, 2024년 1학기 133명으로 증가했다"면서 "2학기 모집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농촌유학에 관심을 보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별, 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도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공문서 작년대비 10% 감축 목표

전북자치도교육청, '공문서총량제'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문서를 지난해 대비 10% 감축하는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분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학교에 보내는 공문서 양을 줄여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공문서 총량제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월별 공문서 생산량을 철저히 분석하고, 매월 부서별로 학교 발송 공문서 생산량을 점검한다.

특히 단순 공문은 K-에듀파인 공문게시판에 게시하고,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K-에듀파인 게시판의 주제 영역을 현행화하고, 공문게시판 미사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공문 생산기관은 공문게시판의 주제 영역 및 게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에서는 전체 교직원 1일 1회 이상 공문게시판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문서 유통량 점검 체계도 갖춘다. 분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각 부서장을 공문서 생산 관리의 책임자로 지정, 학교 발송 공문서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공문서 감축 및 업무 개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문서총량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 행정업무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공문 생산자와 수신자 모두의 노력으로 학교 업무를 효율화하고,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RISE 시범지역 최초 개최

전주대 스타센터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날 27일 스타센터 하림시선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10여 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약 600명과, 전북특별자치도의 26개 기업이 함께했다.

이 박람회는 교육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RISE 시범지역 중 가장 먼저 열렸다.

이날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와 박진배 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꿈을 향해 나갈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한 인재들이 가진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베트남에서 온 쩌후호영(금융보험학과 졸업생)은 "전주대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이번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기업과 실제적인 면접을 경험하고, 상세한 비자 상담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유(전북대 무역학과 석사 수료)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여러 기업의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